■ 실속 재테크

알뜰 추석 카드 활용법

쿠폰 이용하면 '실속 쇼핑'

10만원 이상 결제땐 5천원 할인권

귀성 통행료 1만원 캐시백 환불도

카드사들이 앞다퉈 추석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선물·제수 구입이나 추석 연휴 여가 계획을 짤 때 카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짭짤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수용품 등 할인=24일부터 30일까지 이마트에서 삼성카드 할인쿠폰을 이용하면, 80여개 생필품을 20%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 할인쿠폰은 요금 청구서와 함께 집으로 배달되거나, 이마트 안내데스크에서 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이 적용된 생필품을 포함해 10만원어치 이상을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별도로 5천원 할인권도 준다. 할인권은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마트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다음달 2일까지 현대·롯데백화점에서 1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5천원 상품권을 준다. 단 현대카드 S는 제외된다. 또 다음달 25일까지 아디다스·리복 등이 직영하는 매장에서 15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1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비씨카드는 홈플러스에서 오는 30일까지 추석선물세트를 구입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과일·참치·햄 등 10개 추석선물에 대해서는 30%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식 카드인 광주은행의 GIFT카드의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구입시 0.5%를, 3천만원 초과 구입시 1%의 할인금액을 최고 100만원까지 기프트카드로 되돌려 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광주VISA카드로 15만원이상 결제시 알뜰선물세트를, 30만원이상 구입시에는 종합선물 세트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KB카드는 사용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5만원 이상 사용하면 그 금액의 10~100%(최대 500만원)을 캐시백 해준다.

◇귀성길도 신용카드로 알뜰하게=교통비도 아낄 수 있다. 광주VISA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에쓰오일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의 주유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가맹점 어디서나 2~3개월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 귀성을 하면서 신한후불하이패스 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면 건당 1만원을 캐시백 방식으로 되돌려준다. 단 21일부터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나 자동응답전화(1544-7800)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이달 중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면 1만5천원을 할인해 주고,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에쓰오일 주유소에서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1년 무료 주유권, 렌터카 대여권 등 100% 당첨이 보장되는 스크래치 복권도 받을 수 있다. /장필수기자 bungy@

한가위 송편 복지시설에 22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에서 열린 '한가위 송편만들기' 행사에서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원들과 신세계 임직원들이 송편을 만들고 있다. 이날 만든 송편은 7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1970년~2009년 추석 선물 가격 비교해보니

남성용 지갑 39년새 109배 '껑충'

화장품세트도 73배 뛰어

39년동안 추석선물 중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것은 남성용 지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 한국 상업사 박물관이 1970년부터 올 추석까지 추석선물 카달로그에 등장한 대표상품 10개 품목의 가격을 5 단위로 비교한 결과 올 추석 남성용 지갑은 1개에 12만원으로, 1천100원이던 1970년 추석 때보다 무려 109.1배나 상승했다.

화장품은 1970년 1세트에 3천원 하던 것이 올해는 22만원으로 73.3배 올랐으며, 1970년 1천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던 벨트와 명란젓도 39년 사이 66.7배나 올라 1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반면 35만원에 판매중인 갈비세트(냉동 1세트·6㎏)는 1975년 3만7천원에 첫 판매 된 이래 9.5배의 인상폭을 보여 가장 낮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양말(1족)은 450원에서 6천원으로 13.3배, 김 세트(1박스)는 2천300원에서 6만원으로 26.1배가 올랐으며, 비누(6개)는 350원에서 1만5천원으로 42.9배가, 조미료 세트는 640원이던 것이 3만5천원으로 54.7배가, 배(1박스) 2천100원에서 12만원으로 57.1배나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잡화나 일상용품에 비해 식품은 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표상품의 평균 가격은 1970년에는 1천437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1만2천600원으로 78.4배가 상승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새얼굴

"中企 보증지원 늘려 성장 돕겠다"

김 종 선 신보 호남본부장

"올해 호남지역에 전년도 보다 약 35%가 증가된 9천200억원의 신규보증을 원활히 공급하겠습니다."

신임 김종선(52)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은 신용보증기금의 전통 업무인 보증 지원을 강화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한 "녹색성장·청년창업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에게는 경제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끝까지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사명감을 강도높게 요구하는 등 강한 정신무장을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광주일고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해 신용보증부 및 종합기획부를 거쳐 관리기획실장, 테헤란로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장필수기자 bungy@

기아차 광주공장 새 사령탑에 송천권씨

기아자동차는 22일 공석이던 광주공장장에 송천권(57·사진) 현대자동차 상무를 발령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에 따라 전임 조남일 공장장이 지난 8월 18일 노사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경질된 지 한 달여만에 새 사령탑을 맞게 됐다.

신임 송 공장장은 서울 출신으로,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3년 현대차에 입사, 현대차 울산 4공장장과 2공장장 등을 역임했다.

송 공장장은 "노사간 화합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스포티지 후속 신차의 성공적인 출시와 양산에 힘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주공장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

기아차 추석맞이 특별점검 서비스

내달 4일까지 광주·전남 72곳

기아자동차는 다음달 4일까지 광주·전남 72곳 등 전국 800여곳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석 특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아차는 이 기간 동안 냉각수·엔진오일·브레이크오일·전구류·타이어 공기압·차량탑재용 공구 유무 등 귀향길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사항들을 점검하고 장거리 운행에 따른 차량 관리 및 안전운전 요령도 안내한다.

또 추석 연휴기간인 10월1~4일 백양사 휴게소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22곳에서도 안전운행을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 차량응급조치, 정비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코너'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시동불량, 배터리 방전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한 고객들은 긴급출동 서비스(080-200-2000)에 전화하면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